

함글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례 12:15

407

2019.3.17

사순절 특집호

2019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_ 마가복음 13:33, 37

오늘의 주요기사

2-3면	사순절 특집
4면	성서 칼럼
5면	뷰티풀퍼어런팅센터
6면	교회용어 바로 쓰기
10면	정신학원 소식
11면	목회칼럼
12면	아기나들이, 꼬마인터뷰

교회일정

4/3(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6교구)
4/14(주일)	종려주일 / 세례, 입교예식 정기당회
4/15(월)~20(토)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
4/17(수)	1/4분기 제직회
4/19(금)	성금요일예배
4/21(주일)	부활주일 / 장애인주일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글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봄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네 개의 풍경

꽃샘추위가 목덜미로 스며들고, 그에 못지않은 꽃샘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있지만, 그래도 봄은 온다. 봄은 산에서 온다. 언 땅을 헤집고 솟털 자욱한 채 올라와 수줍게 핀 노루귀꽃이 참 귀하다. 봄은 북에서도 온다. 남북 가른 철조망에 꽃처럼 달린 소망의 리본 따라 냉전의 벽을 녹이는 바람이 분다. 봄은 새벽부터 온다. 3월 첫 새벽 월삭 기도회에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다독이는 기도가 뜨겁다. 봄은 공동체에 온다. 가장 작은 씨앗,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가 끝나면 겨울 방학이 끝나고 겨자씨가 모인다. 마음이 모이면 봄이 온다.

함글함울

사순절 특집 | 김화수 담임목사 사순절 설교(2019.3.10)

내가 맞이한 사순절

40일간의 기념일, 사순절

지난 3월 6일 수요일은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었습니다. 교회력에서는 이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어원은 “40일간”을 뜻하는 그리스어 “테사라코스테(tessarakostē)”에서 왔습니다. 교회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며 지키는 “40일간의 기념일”이란 뜻입니다.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춘분 후 첫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보통 3.22~4.25 사이)을 부활절로 지켜왔습니다. 사순절은 이렇게 지정된 부활절을 기점으로, 거꾸로 세면서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서 주일이 빠지는 이유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절제를 통해 경건하게 지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순절이 “40일간”으로 결정된 것은 325년 니케아공의회부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력에서처럼 <“재의 수요일”에서 시작하여 주일들을 제외한 40일간>으로 사순절의 형태가 정립된 것은 7세기 무렵입니다. 이렇게 “40일간”이라는 상징적인 수가 강조된 이유는, 성경에서 40일은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이며 경건한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에 앞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는 경건한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일 년에 한번 40일간의 사순절을 정해, 절제하며 경건을 도야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금식한 것을 본받아 부활절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경건을 훈련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전통을 본받아 사순절 기간에 절제하고 금식하며, 깊은 기도를 통해 자기 신앙의 자리를 되돌아보

고 회복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에게만 의미 있는 절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을 한층 더 성숙시킬 기회가 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깨닫고 새겨야 할 세 가지

1. 놀라운 대속의 은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중에 있는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과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참고해서 보면,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댄 채 통곡하면서 마치 사투하듯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정말 처절합니다. 예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잔’을 옮겨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잔’은 십자가형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제 곧 닥쳐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가 묘사하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은 극도로 고통스럽고 격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인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것, 우리 것”이라 여겨지는 것 외에는 사랑도 관심도 주지 않으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기억되면, 우리는 나 아닌, 우리 아닌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 주변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교우와 이웃에게 더욱 관심을 쏟고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2. 가장 위대한 사역, 기도

감람산의 예수님을 묘사하는 누가복

음 본문에는 기도한다는 말이 반복하여 나옵니다. (40절 “기도하라”; 41절 “기도하여”; 44절 “기도하시니”; 45절 “기도 후에”; 46절 “일어나 기도하라”) 또한, 예수 자신께서는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절박하게 기도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한 단계 더 성숙시켜 가는데,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가 무엇 이기에,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기도를 강조하시는 걸까요?

먼저,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의 방점은, 기도하는 내가 변화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신앙인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우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둘째,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그 밤을 보내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5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들도 어렷음이 다가올 시련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근심하고 염려할 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에 떨지만, 오히려 잠에 빠집니다. 이렇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특히 사순절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로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에 취할 때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

울여야 합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위대한 사역, 기도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엮매고 있던 자아와 욕망을 떨쳐내고 겿세마네 동산의 예수께 나아가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그리스도인의 귀소본능, 거룩함에 대한 열망

예수께서는 잠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거룩함을 열망하는 마음이 육신의 피로와 잠을 쫓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이겨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귀소본능을 가진 연어는 참 신비롭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대를 휘젓고 다니다가도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강원도 산골짜기를 찾아옵니다. 바위가 가로막고, 수중보가 가로막고, 심지어 폭포가 가로막아도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찾아옵니다. 태어난 자리의 물 냄새를 기억하고, 그 냄새를 따라 찾아온다고 합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이기적인 귀환을 가능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본래 자리인 거룩함을 열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이 열망이 바로 거룩함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 열망을 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순절 기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의 귀소본능과 같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교회 모든 교우가 이 열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전문은 주보와 함께 비치된 이번 주 “말씀묵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집 | 유유행청의 사순절

우리들의 사순절 이야기

사순절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과 고난을 되새기며 우리 삶을 다잡는 시간입니다. 유아숲, 유소년숲, 청소년부, 청년부,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 주님의교회 유유행청은 사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고 있는지를 들어보았습니다.

유아숲 | 유아부, 유치부

아야, 아야~ 나를 위해 아프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어린이들에게 맞는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배우고 동참하도록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야기. 그 사랑을 기억하고 동참하도록 돕는 유아숲의 사순절을 소개합니다. 유아기의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이 시기에 반드시 달성해야 할 신앙의 개념입니다. 유아숲은 사순절 기간 동안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

자 되심을 매주 배우게 됩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신체활동 및 눈높이에 맞는 적용활동을 통해 말씀을 경험하고 자신의 말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유아숲 만나만나'를 통해 가정과 연계하여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여 엄마아빠와 함께 말씀을 읽고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의 바른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아숲의 사순절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로 깊어집니다.

이은미 전도사

유소년숲 |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함께 나누는 사순절 말씀 묵상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사순절 말씀묵상 달력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을
묵상하고 실천하려 합니다

사순절은 유소년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시선을 집중시키며 자신과 공동체의 죄와 고통의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구원과 회복을 통해 주님께 서 제시해 주신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체득해 가는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유소년숲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서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순절 말씀묵상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사순절 말씀묵상 달력에 맞추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적어 보기도 하면서 생생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으로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말씀묵상을 실천한 날은 사순절 말씀묵상 달력에 색칠도 하고, 추후시상을 통해 아이들이 더욱 적극적인 마음으로 말씀묵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하는데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눔으로 온 가족이 예수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맛보며 신앙으로 하나 되는 사순절의 시간들로 채워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은영 목사

청소년숲 | 중등부, 고등부

예수님 사랑 안에서 나와 너를 발견하는 시간

큐티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고난 받으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려 합니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와 너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 사랑에 놀라고, 그 사랑이 나와 너를 향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새롭게 합니다. 이 사순절에 청소년부 가족들은 큐티인 본문(마가복음) 따라 매일의 말씀과 주일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리고 토요 제자훈

련반을 통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 힘쓰며 성경통독반을 통해 성경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알아가며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청소년부 가족들이 연합으로 함께 예배하며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 허락된 영생과 구원의 기쁨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로서의 절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사랑하기 위한 적극적인 발돋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청소년부가 되려 합니다. 주님의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빠지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경순 목사

청년부

삶의 기준이 될 그리스도의 십자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고
양육과 제자훈련을 통해
십자가의 삶 실천을 배웁니다

젊은이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어떤 사람은 스펙을 쌓느라, 어떤 사람은 경력을 쌓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세상적 불안, 염려, 우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사순절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숙고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 어떤 희생, 고통, 외로움을 견

디셨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젊은이들은 말씀 묵상을 통해 십자가의 도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양육과 제자훈련을 통해 그리스도 따름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성경 베스트"를 통해 성경을 읽으며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거자씨 모임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구체적인 방안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순절을 살아가며, 삶에서 십자가의 도를 품고 실천하는 크리스천으로 더욱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한 목사

성서칼럼 돌부리

네 이름이 무엇이냐(마가복음 5:1~20)

마가복음의 첫 절반(1~8장)에서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에 두고 양 연안을 오가시며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러한 마가복음의 지리는 실제 지리 이상의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호수 한편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호수 “건너편”(5:1 “거라사”; 6:45 “벧새다”; 8:13 “건너편”)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호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이고, 예수께서는 거침없이 이 경계를 넘나들며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신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방인 거주 지역인 거라사로 이동하면서 시작한다(4:35). 그런데 배가 거라사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오직 예수께서만 배에서 내리신다(5:1).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는 이방인의 땅이 그리 달갑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예수께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찾아온다. 그 사람은 귀신으로 인해 심히 괴로워하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을 제쳐놓고, 잠시 귀신과 논쟁하던 예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으신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대답한다.

“내 이름은 〈군대〉다” (5:9) 그렇게 이름이 밝혀진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천 마리 되는 돼지 떼로 들어갔고, 곧 돼지 떼는 바다로 내리달아 몰사한다(5:11~13).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감사하기는커녕 자기 마을을 떠나 달라고 요청한다(5:17).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생각할수록 이상하다. 도대체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먼저, “군대”라는 귀신의 이름이 좀 특이하다는 것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언어적 지식과 역사적 배경에 관한 약간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마가복음을 비롯한 신약성서 전체는 1세기 “공용 그리스어(Koine Greek)”로 기록되어 있다. 일상어 차원에서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일상언어로 아람어(본래 북부 셈어에 속하는 방언이었지만, 페르시아제국 시기를 거치며 “제국 공용어(lingua franca)”가 되었고, 1세기 당시 팔레스

타인 지역의 일상어로 사용되었다)가 사용되었고, 동시에 지중해 연안 지역의 행정 및 무역 표준어였던 공용 그리스어도 함께 사용되었다. 학자마다 추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수께서는 모국어인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가끔 간단한 그리스어도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다. “군대”라는 이 귀신의 이름이 불려오는 이질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우리말 성경이 “군대”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레기온(legion)”은 라틴어(로마의 토착어) “레기오(legio)”를 음차한 (그리스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외국어이기 때문이다.

“레기온”은 단지 모든 형태의 군대를 가리키는 일반명사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로마군 체계의 최상위 단위인 “군단”을 일컫는 말이다. “레기온”의 규모는 시대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10개의 보병대(보병

대당 300~600명으로 구성)와 300명의 기사가 포함되어 약 4,200~6,000명 사이의 규모였다(Lewis and Short's Latin-English Lexicon). 예수께서 활동하시고, 마가복음이 집필되던 1세기 로마제국에는 백인대 5~6개를 묶어 만든 보병대 10개와 120명의 기사 및 특수병과가 포함된 약 6,000명 규모의 “레기온”이 25개 존재했다(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특히 복음서의 “레기온”과 관련하여, 로마제국 10군단 “LEGIO X FRETENSIS”(레기오 10 프레텐시스, “(시칠리아) 해협의 10군단”)의 역사적 행보와 상징물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로마제국 10군단은 옥타비아누스(후일 아우구스투스)가 소집하였고, 명망 높았던 “카이사르 10군단”의 고유번호를 이어받았다. 그리고 시칠리아 해협 근처에서 벌어진 폼페이우스와의 전투에 참전하여 큰 공을 세우고 “프레텐시스”(“해협의”)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 10군단은 17~66년에 시리아 북단으로 배치되어 다른

여러 군단과 함께 주둔하면서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치안을 담당했다. 이 시기는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와 중첩된다. 그리고 66~73년 1차 유대전쟁에 주요 진압군으로 참전하여 유대 반란군을 토벌한 후 예루살렘에 주둔했다. 이는 마가복음 집필연대와 중첩된다. 놀랍게도, 10군단의 유명한 상징물 중 하나가 바로 “수돼지(boar)”였다.

“레기온”은 로마제국의 힘의 원천이자 상징이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듣던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에게 거라사 “레기온” 귀신 이야기는 농치기 어려운 선명하고 풍성한 현실적 함의를 가진다. 한 사람을 이웃과 자기를 향한 광포한 광기로 몰아간 귀신, 사람의 인생을 폭력의 굴레에 밀어 넣어 철저히 파괴한 귀신의 정체가 바로 “레기온,” 즉, 온 지중해를 무력으로 장악한 로마제국

의 폭력적 질서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방해하던 “바알세불(사탄)의 왕국”은 로마의 지배질서라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사실 이러한 귀신의 이름은 참 아이러니하다. 당시 로마제국의 폭력은 “평화와 정의”의 이름으로 유통됐다. 중앙의 귀족이나 로마의 영광을 등에 업은 식민지 기생권력, 그리고 해로와 육로로 대규모 무역을 하던 무역상들에게 로마의 “평화”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평화와 정의”가, 제국주의 지배질서가, 팔레스타인 변방의 한 마을에 현상하는 방식은 철저한 “군대” 귀신의 형상이었다. 농촌 공동체의 평범했던 자영농은 빛의 굴레에 얽혀들어 갔고, 그렇게 자기 땅을 잃은 농민들은 생존을 위한 빵 한 조각에 애가타는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했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 아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불안정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만 그 강요된 이름을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 거라사 마을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빼앗고 삶을 파괴하는 로마의 폭력적 질서를, 로마의 방식을 따라, “평화와 정의”라 불렀다. 그리고 다만, 그 “평화와 정의”가 짓밟고 파괴한 한 동료 인간의 몰락한 삶과 가시적 폭력만을 광기요, 귀신이라 부르며 쇠사슬로 묶어 격리한다.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마을에서 배제당한 한 광인 앞에 예수가 나타난다. 그리고 귀신을 향해 묻는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의 물음은 한 귀신들린 인간 속에 숨어 있던, 근원적이고 사회적인 폭력 구조를 폭로한다. 예수의 물음 앞에서, 단지 한 불량한 인간의 우발적 광기 정도로나 치부되던 귀신은 이제 온 사회에 스며있는 보이지 않는 폭력적 지배질서의 이름으로 자기를 호명한다. “내 이름은 〈군대〉다”

그렇게 한 광인에게서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을 내쫓던 순간의 흥분은 귀신과 함께 사라진다. 거라사 마을에 남겨진 건 예수의 폭로가 드러낸 진실의 이름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름을 견디기 힘들다. 예수가 드러낸 귀신의 이름은 그들의 삶을 지탱하던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뒤엎었다. 다만 저 “귀신들린 사람”만 제외하면 “정상”이라 여겼던 자신들의 삶이, 사실은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삶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예수가 드러낸 그 귀신의 이름을 견디려면, 그동안 자신들이 눈감고 편승하며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modus vivendi)”을 부정해야 한다. 자기 삶의 발판을 걷어차고, “정상적” 일상이 귀신에 사로잡혀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께 간청한다. “이 지역을 떠나주십시오.”

자기 삶의 발판을 걷어차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를 기억하는 사순절이다. 홀로 거라사에 내리신 예수께서, 거라사에서 추방당한 예수께서,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 외치시는 음성이 들려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손경민 전도사



사역소개 | 뷰티풀페어런팅센터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의 장

“가정은 신앙의 주체입니다”라는 2019년 표어에 발맞추어, 올바른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부모 신앙 교육의 공간인 뷰티풀페어런팅 센터가 출범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다.

취지, 정신, 목표

한국사회의 탈종교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한국교회 역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별히 다음세대의 감소추이는 낮은 연령대로 갈수록 더욱 심화된다는 점이 교회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일은 이제 한국교회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차대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이 일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시

인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세대가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인하여 주님의교회는 쉼의 말씀(신명기 6장 4-9절)에 근거하여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됨을 선포하며 교회와 가정의 유기적인 신앙교육의 장으로 뷰티풀페어런팅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뷰티풀페어런팅센터는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가지고 이제 막 걸음마를 떴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 사역을 통해 주님의교회 모든

아름다운 부모학교 (Beautiful Parenting) | 기

▶ 3.21 ~ 5.23 (목) (10주 과정)

* 아름다운 부모학교 커리큘럼

주차	날짜	강의내용	강사	주차	날짜	강의내용	강사
1	3.21	오리엔테이션 특강	BPC	6	4.25	성품교육	이정민 집사
2	3.28	나는 하나님을 '아는' 부모입니까?	박상진 교수	7	5.2	인생의 원칙 만들어가기	정은진 소장
3	4.4	학습중입니까? 교육중입니까?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8	5.9	부모의 정신건강	김광일 장로
4	4.11	여호와 경외 교육 - 가정예배	이도복 목사	9	5.16	크리스찬 학부모운동과 하나님나라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5	4.18	내 아이를 '정말로' 알고 있나요?	이은미 전도사	10	5.23	아름다운 수료식	김화수 목사

가정이 회복되고 각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자람으로 하나님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한국교회의 희망의 불꽃을 붙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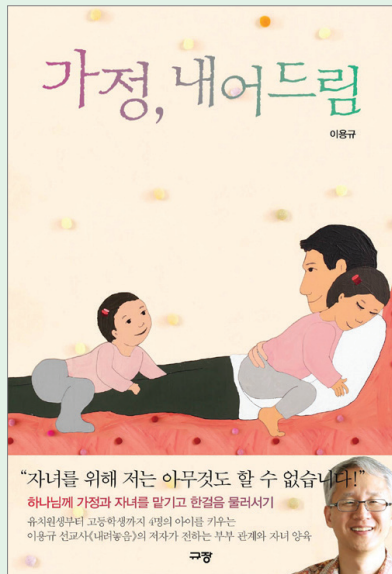
프로그램

프로그램	의미	일시	대상	강사진(가나다 순)	주요 내용
다음세대를 위한 자녀축복 월삭 기도회(진행중)	매월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를 축복하며 중보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	매월 첫 주 토요일 새벽 5시 20분 ~ 6시 30분	모든 성도		
아름다운 부모학교 (3월중 실시)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됨을 알고,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될 수 있도록 부모를 신앙의 교사로 양육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대회의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엄마, 아빠, 예비 엄마, 예비 아빠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연구원 김광일 장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화수 담임목사 박상진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이도복 목사 (총신교회 교육총괄) 이은미 전도사 이정민 집사 (서울가속학교 강사) 정은진 소장 (진로와소명연구소)	1) 나는 하나님을 '아는' 부모입니까? 2) 학습중입니까? 교육중입니까? 3) 여호와 경외교육 · 가정예배 4) 내 아이를 '정말로' 알고 있나요? 5) 성품교육 6) 인생의 원칙 만들어가기 7) 부모의 정신건강 8) 크리스찬 학부모운동과 하나님나라 9,10) 오리엔테이션 특강, 수료식
가정예배 학교 (가을학기 예정)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가정의 회복과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교육	주1회 총5주 (5주차에 가정예배 캠프 진행)	아름다운 부모학교 수료자	김화수 목사 신형섭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이은미 전도사	1) 믿음의 부모, 가정의 정원사 2) 믿음의 부모, 다시 그리기 3) 가정예배로의 부르심 4) 가정예배 디자인하기 5) 가정예배 오답노트 다시쓰기 가정예배로 떠나는 1박2일 가족캠프
결혼예비학교 (4~5월 진행예정)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생활의 첫출발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준비하도록	주1회 3~4주 과정	결혼 예비커플, 신혼 1년차 이내 커플	이정민 집사 한시영 목사	
해피맘스쿨 (2020년 봄 예정)	생명을 기다리는 여성들이 말씀으로 준비하며 행복한 엄마가 되어 가는 태교학교	주1회 8주 과정	결혼 예비커플, 신혼 1년차 이내 커플	이은미 전도사 외	말씀묵상 말씀수예 생애 주기에 따른 신앙적 활동 외
센싱 큰나무 (진행중)	감각적 교구를 사용하는 부모(성인)를 위한 묵상프로그램	주1회 프로그램별 각 12주 과정	부모 또는 성인	이은미 전도사	구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2020년 봄 예정)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신앙의 부모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	주1회 8주 과정	부모 또는 성인		회복, 자유, 지혜 / 각각 8주 과정

새해 특집 | 담임목사 추천 도서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를 깊게 이해하는 좋은 책들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하고 바른 부모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좋은 책들을 3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 책들은 교회 1층 설만한물가에 비치, 쉽게 구입하실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용규 지음, 규장, 2017

이 책은 자녀 양육의 기술이나 요령을 전수할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기에 최선의 원칙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가정의 여러 문제에 대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은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식으로 살며 자녀를 양육하고자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마치 교회 선배가 말하듯 조곤조곤 전한다. 또한 배우자와 관계나 자녀 양육에 지친 이들에게는 격려와 위로를, 자녀 교육과 진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대를 갖도록 도전한다.



백은실 지음, 규장, 2009

오직 아이에게 말썽을 심는 일이 엄마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일깨워주는 백은실 집사의 『말썽 심는 엄마』. 지혜와 명철이 탁월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로 키우도록 도전하고 있다. 이 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썽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어느 엄마의 이야기다. 태교는 물론, 열 살이 될 때까지 말썽암송과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를 '하늘 자녀'로 키우는 방법을 보여준다. 단순한 이론이나 설득을 내세우기보다는 저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간증하여 은혜롭다.



박상진 지음, 두란노, 2006

성경적 자녀 양육 지침서. 영혼을 일으키는 목회자 박용목 목사의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저자(박상진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삶 속에서 실천한 성경적 교육의 원리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이 될 수 있는 비법을 '어노인팅',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비전', '미션'이라는 소재목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가정이 함께 예배하고, 부모가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며, 가족이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나누며, 가정에서 하나님의 꿈을 세워갈 수 있도록 실천적 지침을 주고 있다.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양코르 연재) > 기도 용어 편 2

기도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X) : 주님, 하나님 아버지 (O)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주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현대 국어의 어법에 맞지 않는다. 2인칭 존칭 명사에 호격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2인칭 존칭 명사에 호격 조사가 붙지 못한다. "민국아", "예슬아"와 같이 존칭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호격 조사 '-아'나 '-야'가 붙일 수 있지만 손윗사람에게 "아버님이시여", "선생님이시여"라 부르는 것은 불가한 것과 같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존칭의 2인칭이므로 이미 사어가 된 '-이여', '-이시여'를 붙여서는 안 된다.

대표 기도 (X) : 기도 인도 (O)

"아무개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와 같은 안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온 회중이 머리를 숙여 무언의 기도를 할 때 한 사람이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하는 경우는 '기도 인도'라 부르는 것이 좋다. 기도 인도자는 그와 함께 머리를 숙인 다른 사람들과 분리될 수 없다. 그는 대표로 자신의 생각

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다. 만인제사장의 사상은 하나님 앞에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사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도에 있어서 '대표', '대신'은 불가하다. 그러므로 '대표기도', '대신하여 기도'는 '기도 인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랑의 예수님 (X) : 사랑의 하나님 (O)

기도 서두에 '하나님' 대신에 '사랑의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 등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끝낼 때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후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는 일차적으로 성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6)고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줄함줄 정리

세미나 | 학원선교부

배우고 준비하는 교육세미나

청소년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기도 어머니, 사랑 어머니들이 뭉쳤다. 2월14일부터 매주 목요일, 3주간 진행된 교육세미나에 기존 및 신입회원, 타교회 어머니 100여명이 함께 모여 청소년들에게 더 깊이 다가가기 위해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1주차에는 '라포(Rapport)형성, 신뢰 관계 맺기', 2주차에는 '상담기술과 의사소통'에 대하여 김경미 교수를 모시고 강의를 들었고, 3주차에는 '인성훈련 및 복음제시'에 대해 김홍래 집사(주님의교회 사랑어머니)와 임경순 목사가 강의했다. 함께 웃고,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3주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함께 배웠고, 성장했고, 청소년을 더욱 깊이 마음에 품게 되었다.

또한 3월14일(목)에는 다시 한 번 '봄 세미나'로 모여 2019년 사역을 시작하기 전, 함께 기도하며 김화수 담임목사의 말씀(마 5:16, 착한행실을 보고)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정신여중고 교장선생님과 교목 목사를 통해 학원선교 사역에 대한 의미와 뜻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언제나 겸손히 배우고 준비하며, 청소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학원선교부 기도어머니, 사랑어머니를 통해 정신여중고 우리의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2019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함줄함울



간증 | 청년부 겨울 수련회

무릎 꿇고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유 아닌 자유를 살았던 날들
돌이켜보니 큰 죄인인 나를
변화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저는 겨울 수련회에 가기 전에 교회에 오랜 시간 나오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손에 이끌려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랑 놀다 오자라는 마음으로 수련회장에 도착했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 건넌 따뜻한 말과 관심으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녁 집회와 특강에서 선교사님과 목사님들께서 전해주시는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절 위해 준비해주신 것만 같아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특강들을 들으며 저는 제가 하나님께 경계를 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제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비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로부터 떨어져 있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의 주인이 되어 모든 걸 제 마음대로 하고 옳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해도 막는 사람이 없는 그 자유 아닌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강을 들으며 저의 문제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것이 아닌 그 주인의 자리를 내심 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감사하게도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기도를 통해 모두 풀렸습니다.

그날 저는 제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는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해 자리에서 나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냥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보고 나니까 제가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제가 잘못된 일인데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를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을 바닥까지 드러내고, 낮추고 보니 이런 저를 이 수련회에 어떻게든 데려와서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제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배반하고 돌아섰던 죄인이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이끌어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딱 사회로 나아가기 직전에 이렇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제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어

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부족한 저를 여러 사역에 사용해주시고 저를 변화시켜주시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넘어지겠지만 주님이 이번처럼 항상 제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제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강현서 / 청년부 30기

사역 간증 | 러시아 비전트립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을 발견한 시간

선교를 준비할 때에는 날씨를 포함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하나님이 훈련시킨 내려놓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퍼즐을 깨달았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저희는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서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뿐이었습니다. 이런 불확실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놓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져 있었다면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함보다 더 잘할까라는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심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눔에는 감사가 흘러넘쳤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새삼 깨달을 수 있

었습니다. 3박4일 간의 일정 중 울림을 준 것은 ‘블라디보스토크역’과 ‘시장사역’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역에는 2015년에 부산역과 블라디보스토크역이 결연을 맺은 동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 결연을 통해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역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때가 차매’(갈4:4-7)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을 때 신, 구약의 400년 침묵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음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듣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부산과 블라디보스토크역을 연결하심, 중국이 막히고 러시아를 예비하심이 놀라웠고 다음 하나님의 퍼즐은 무엇일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시장사역은 야외시장에서 북한 노동



자본들(삼촌)을 만나 생필품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삼촌들은 한 민족인데 악수라도 하자고 하면 악수를 받아주고 어떤 분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음에 또 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일되면 놀러 오라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을 ‘손해’라고 생각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그곳에 있는 삼촌들은 모두 통일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반응에 신기했

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인데 타지에서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통일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박4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저희를 인도해주신 선교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대한 것의 배의 것을 보여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박수빈 / 청년부

사역 간증 | 호스피스사역팀

환우로 봉사를 받을 것인지, 자원봉사자로 섬길 것인지

지난 해 11월 처음 병실에서 만난
64세 환우가 생각난다.
처음엔 마사지를 부담스러워 했지만
차츰 정이 들어 반가워하던 환우는
지난 2월 16일 하늘나라로 가셨다.

봄은 아장아장 아기의 발걸음으로 남녘부터 걸어왔어도 눈앞까지 당도해 꽃을 피워 내고 있었다. 모처럼 미세먼지가 걷어진 날이다. 하루 전만해도 숨쉬기가 어려웠었는데 걸을만하다. 그리고 은혜롭다. 봉사하러 전철을 내려서 걸어가는 이 길이 오늘날 같아라하고 생각하며 길을 걷는다. 13번째 매주 금요일 마다 걸어가는 병원으로 가는 길, 오늘 따라 이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겨 본다. 병원에 들어가면 진료를 받으러 진찰접수를 하며 기다리는 환우들과 보호자들이 많은데 나는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 봉사를 하러 간다. 나를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볍다. 호스피스 교육을 마치고 봉사를 처

음 시작하였을 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따라 유난히 귀에 맴돌고 있다. “환우로 누워 봉사를 받고 싶으세요, 아님 자원봉사자로 봉사를 하고 싶으세요.” 하는 말씀이...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운을 입으며 기도를 하는데 불현듯 3월에 병원 마당에 가득 핀 벚꽃과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북한산에 진달래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64세이시던 환우가 생각이 난다. 담관암이 폐전이로 번져 구토와 폐렴으로 입원하신 환우.

지난 해 11월에 처음 병실에서 뵈고 봉사자라고 소개하니 아직은 필요가 없으시다고 거절을 하셨는데 다음날 봉사자가 따스한 물과 크림으로 발마사지를 해드리니 얼굴이 함박웃음이 되어 행복해 하시던 모습과 보호자와 같이 있다가도 봉사자들이 들어가면 보호자를 내보내고 발을 쪽 내밀고 마사지를 받고 싶어 하시던 모습들과 봉사자들이 발마사지를 오래하면 팔이 아프니까 그만 하라고 일어나 앉아서 발마사지

를 멈추라고 하던 모습들, 봉사자가 ‘부담 가지지 말고 동생처럼 언니처럼 지내자’고 하니 웃으면서 우리들을 한참 쳐다보던 모습들이 생각난다.

퇴원을 하신 후 1월에 재입원을 하셨을 때 발마사지를 해드리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어 건강을 회복시켜주시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니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 한번 죽는데 어떤 죽음을 맞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시고 삶과 죽음을 놓고 기도를 하시라”고 하니 “아 그래야 하겠다”고 하신다.

며칠이 지난 후에 발마사지를 하며 얼굴을 씻어드리며 환우분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숨쉬기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셔서 간호사께 연락을 해 산소마스크를 바꾸었는데 더 힘들어 하셔서 보호자를 찾아서 환우 옆을 지키게 도와드렸는데 환우가 호흡이 힘들다고 가쁜 숨을 쉬시더니 혼절을 하여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아픔 없는 곳에서 잘

지내시라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병원에서 봉사자들을 만난지 4개월 병원생활 3개월만인 2월 16일에 피어나는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전철 안에서 그동안 병실을 드나들며 만났던 환우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드렸다.

오는 사람은 표가나지 않지만 떠나간 사람은 많은 흔적을 남긴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 것은 세상은 곧 자기 혼자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봉사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어우러지는 은혜 넘치는 봉사현장.

오늘도 주님의교회 호스피스팀에서는 10여개 봉사현장에서 50여 봉사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생명 사랑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말기암 환우들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신형섭 안수집사 / 호스피스사역팀

사역 보고 | 하나원부

통일소망 선교회를 다녀와서

한반도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향후 북한 교회의 재건과
기독교적 사명자 양성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수가 지나고 한결 낮기온이 따스해진 2월 23일 토요일 오후. 통일선교분과위원회 허준 목사와 하나원부 박미향 총무와 함께 통일소망선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통일소망선교회는 주님의 교회 하나원부가 지원하는 탈북민사역에 함께 협력하는 기관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새로운 부장단이 협력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 여러 교회들의 지원 하에 탈북민에게 도움을 주고 복음화에 전력하는 통일소망선교회의 귀한 활동 상황과 기타 사역 현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주님의교회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사역에 많은 보탬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2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선교회의 활동과 한반도의 정치적 환경변화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선교회 목사님의 말씀 중 두 가지만 전달하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교회의 활동은 인권 측면의 사역에 머물지 않고 향후 북한 교회의 재건을 위한 기독교적 사명



자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탈북민이 정치적 환경변화에 희생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귀한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기독교적 사명자가 많이 양성이 되고 탈북민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움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대수 하나원부 부장

사역 보고 | 통일선교분과위원회

우리 다시 만나요

하나원 252기 정착결연사역

정착결연사역은 탈북민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잘 정착하도록 돕는
귀한 사역입니다

통일선교분과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토요일 하나원 252기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정착결연사역 '다시 만나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는데 지난 해 하나원 도시문화체험 프로그램 때 만났던 하나원생들을 다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착결연사역은 탈북민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잘 정착하도록 돕는 귀한 사역입니다. 지난 번 도시문화체험 때 우리는 다시 만나요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난 뒤 하나원을 수료하고 다시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도시문화체험 때 하

나원 자매들을 성심껏 섬겼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이번에도 많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이번에도 주님의교회 내 남북청년모임인 너나들이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함께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귀한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원 목사님들과 한정협에서의 수고로 연결하여 서울, 경기, 인천, 아산과 안동에서까지 각지에서 252기 수료생 46명이 '다시 만나요'에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낯선 길이지만 우리가 일러준대로 주님의교회를 찾아서 왔습니다. 서로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고 반가웠는지 만나자마자 얼싸안고 기쁨으로 해후를 하였습니다.

환영과 영접 후 우리는 먼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먼저 이 땅에 와서 정착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너나들이 청년들이 축복송을 부르고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 먼저 온 고향 청년들을 보니 수료생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너나들이 청년들은 자신의 고향을 말하고 같은 동네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또 마음을 담아서 후배분들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롯데월드타워로 이동하여 31층에 있는 SKY31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전망을 즐기며 맛있는 식사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석촌 호수를 함께 한 바퀴 돌면서 예쁜 사진도 찍고 이른 봄날을 만끽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잊그제까지 자옥했던 미세 먼지를 사라지게 하시고 쾌청한 날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울놀이마당에 모여서 함께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게임과 노래자랑 등을 하면서 어울렸습니다. 남과 북의 차이를 넘어서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이날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신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만났던 탈북 형제자매들이 이 땅 가운데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잘 뿌리내리기를 기도합니다.

통일선교분과위원회

정신학원 소식 |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남자가 활동하는데 여자가 못할 이유가 있소?

국가보훈처는 3.1절을 앞둔 지난 2월, 김마리아(1892~1944) 선생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김마리아는 정신여학교를 1910년 졸업하고 애국부인회·여전도회 등 국내외 여성운동을 이끌었으며, 성경적 국가관·미래상을 고취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민족지도자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미혼으로 영면한 그녀의 유품은 수저 한 벌이었다.

“조선 사람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남자가 활동하는데 여자가 못할 이유가 있소?”

1919년, 모진 고문과 핍박 속에서도 취조하는 일제 경찰에게 당당하게 대답한 여성이 있었다. 그는 여성교육이 전무했던 시절 일본과 미국에서 수학한 선구자였고 일생을 독립운동과 민족 교육, 여권 신장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인물이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서 근대교육 받아

김마리아는 1892년 6월 18일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소래마을 대지주의 막내로 태어났다. 이 지역은 한글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서상륜·서경조 형제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도움으로 우리 나라 최초의 장로교회(소래교회)가 설립된 곳이었다.

마리아 부모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개화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어머니는 임종하는 순간에도 딸의 교육을 부탁했다. 소래학교 시절 마리아는 남복을 입고 하인들이 베는 보교(步轎)를 타고 등·하교했으며 졸업할 때까지 줄곧 모범학생으로 우등을 했다. 매사에 신중을 기하며 사내 같은 포부를 지녔던 그는 교회와 학교를 통해 서구적 근대교육과 기독교적 인생관을 교육받았다.

정신여학교를 다닐 때는 안창호 김규혁과 절친한 숙부 김필순과 고모 김순애의 영향을 받아 남다른 민족의식을 형성했는데, 작문시간에 그는 항일적은 글을 곧잘 써서 당시 일본의 탄압상을 신랄하게 비판하곤 했다.

1910년 정신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마리아는 광주 수피아여학교를 거쳐 정신여학교 수학교사로 부임했다. 그는 기숙사 21호 독방을 썼는데 틈만 나면 기도실에 가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다.

일본 유학시절 2·8 독립선언 준비

마리아가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뛰

어든 것은 재일본유학생들이 추진하고 있던 2·8독립선언 등 3·1운동의 준비단계에서였다. 루이스 교장의 추천으로 일본유학을 떠난 그는 1916년 고모 김필례가 재학중인 동경의 여자학원 대학부 영문과에 들어갔다.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일경의 감시가 있기는 했으나 국내와 같지는 않았으므로, 유학생들은 비교적 자유로이 구국독립에 대한 연설과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었다.

1918년 재미동포 이승만 등 민족대표 3인이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은 민족 전체의 의사를 표시할 거족적인 일대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2·8독립선언운동을 치밀하게 준비해갔다. 그곳에는 동경여자 유학생친목회장으로 활동했던 마리아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2·8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조선청년독립단 대표 11명 중 여학생을 단 한 명도 없었다. 마리아는 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게 독립 거사에 참여할 수 없는지를 몇 번이고 자신에게 되물었고 항일독립운동에서의 부녀자들의 참여확대 문제를 더욱 절실히 생각하게 되었다.

졸업을 눈앞에 둔 마리아는 독립운동을 국내로 확대시키기 위해 독립선언문을 기모노의 허리띠에 숨겨 1919년 2월 중순경 귀국했다. 그때까지 여자 유학생에 대한 일제 경찰의 감시가 느슨했기에 그는 "여성들이 단체를 만들어 남자들과 긴밀히 연락하고 남자단체의 활동이 어려울 때는 여자단체가 대신하자"고 주장했다.

부산에 도착한 마리아는 학교와 교회, 여성계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독립의 때가 왔음을 알리고 그때 함께 궐기하도록 당부했다. 지방 각지를 순회하며 독립운동을 고취하던 그는 황해도 봉산에서 3·1운동 발발의 소식을 듣고 곧장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나 3월 5일 정신여학교 기숙하에서 곧바로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감옥에서 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진 고문을 받았다. 물과 고춧가

루를 코에 넣고 가마에 말아서 때리고 머리를 못 쓰게 해야 이런 운동을 안 한다고 시멘트 바닥에 구둑발로 머리를 찌는 지독한 고문 후 독방에 갇힌 그는 성경을 외우고 하나님께 조국독립을 호소하는 기도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올렸다. 특히 국민의 절반이 되는 여자들이 국민 된 의무와 권리를 자각하게 해 달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그럴 수록 마리아에게는 기울어가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여 할 책임감이 가슴 깊은 데서부터 끓어올랐고, 구약 성경 시편 23편은 외로운 감옥생활에서도 주께서 항상 함께하심을 확신하게 했다.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독립운동가

“우리는 지금까지 독립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껏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6개월 동안 갖은 고문을 당해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마리아는 출감 후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1919년 9월 19일 모교인 정신여학교에서 20여명의 여성 지도자들을 모아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비밀로 결성했다. 전국적인 항일여성조직으로 확대된 애국부인회는 국내를 두루 돌아다니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상해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내며 구국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동지의 배반으로 그해 11월 일제경찰의 검거망에 걸려들었고 마리아는 다시 투옥되고 말았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6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난 후 그는 중국 상해로 망명했다. 상해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황해도대의원, 국민대표회의 여성계 대표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했지만 많은 날을 벌로 고통하며 지냈다. 그러나 민족지도자로서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 더 큰 배움이 필요했던 마리아는 1923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곳에서도 교포들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지역들을 돌면서 독립운동의 상황을 자세히 알리고

교포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10여 년간 시카고대 콜롬비아대 뉴욕신학원 등에서 사회학, 교육행정학, 종교교육학을 공부했고 뜻밖에 만난 대한애국부인회 동지들과 다시 여성독립운동단체인 근화회(瑾花會)를 조직,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했다.



1932년 7월, 40세의 나이로 그리던 조국에 온 마리아는 원산의 마르다월순여자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교육 양성하던 중 1934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제 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일제의 탄압상을 통탄하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통해 조국애와 민족애를 심어 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좋은 날을 바라보게 했다.

일제가 모든 공식적인 모임에서 국민의례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가 이끄는 여전도회는 공식적 모임을 회피함으로써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처음에는 그토록 강건했던 독립운동가들도 집요한 총독부의 공작과 회유 등으로 흔들리기 마련이었지만 그는 눈을 감을 때까지 오직 한 길만을 생각했고, 마침내 오랜 감옥생활에서 얻어진 병고로 조국광복을 1년 앞둔 1944 3월, 52년간의 일생을 마치고 영면했다. 그가 떠나자 도산 안창호는 "김마리아 같은 여성동지가 열명만 있었던들 대한은 독립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블로그(<https://mpva.tistory.com>)

/134)에서 함줄함울 발췌

목회칼럼

3원이 있는가?

다음 세대 양육이 어려운 까닭은
3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자원과 열성적 후원,
제대로 모셔온 재원을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려운 것은 3원
(자원, 후원, 재원)이 없어서입니다.

자원의 부족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된 마음이 없
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섬기고
자 하는 교역자들이 희박해 가고 있
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소명과 헌신된 마음이 없이 전
도사 시절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그
러다 보니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좌
충우돌합니다.

가장 경험이 없을 때 다음 세대를 섬
기는데 그럴 때 다음 세대 섬김을 그
냥 거쳐 가는 사역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 양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계속 섬기기 어려운 요
소도 있습니다. 일단, 다음 세대를 말
으면 재정을 써야하는 구조입니다.
교역자 지갑을 열어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야 합니다. 그러나 교구

를 섬기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심방
을 가거나 병원에 가서 기도만 해 주
어도 대우가 다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청소년부를 섬길
때 상당한 사비를 썼습니다. 신학교
시절 유학을 준비하면서 영어를 공
부하며 과외를 적어도 10명은 했었
는데 그 수입을 거의 청소년들에게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면 교역자의 재정
적 자원도 바닥이 나는 현실입니다.

후원의 부재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후원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한 자녀
를 키워도 가정의 예산의 50% 이상
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다
음 세대를 세운다고 하지만 얼마나
지원할까요?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부흥시키고,
건강하게 하고자는 원하지만 후원
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말은 하지만 후원을 하지
않고,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
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모순에 있습
니다.

공부를 잘 하도록 가정에서 조용한
방을 제공해 주려고 하거나 안 되면
독서실을 사용하도록 등록을 해 줍
니다. 건강하도록 좋은 음식을 주려
고 합니다. 성숙하도록 박물관, 미술
관, 해외 여행도 다녀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
한 후원은 어떨까요? 정말, 자식을
키우듯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생아를 키우듯 인색하지
는 않는지요?

서울에서 전도사 시절 오후 예배 때
좀 세계 이 부분에 대해 설교시 말하
였습니다. 예배 뒤 재정 담당 장로님
이 앞으로 오셨습니다. 은혜 받았
다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에 제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인색한 교회에는 나
중 다음 세대가 인색한 마음을 가지
고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재원의 부재

이 후원을 말할 때 무엇보다 전문 사
역자를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후원
을 말할 때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세워
지도록 전문 사역자 혹은 풀타임 담당
교역자를 세워야 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
서 학원에 보내거나 혹은 과외교사를
모셔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녀
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
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 사회에서 임금을 줄이고자 기
간제, 비정규직, 파트타임으로 고용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교회 안
에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원을 줄이지만
그런 다음 세대에서 인물이 나오기
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영적인 거장
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전
문 사역자는 고사하고, 전임 교역자
를 세울 수 있는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교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러
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교회에서 과감한 투자
를 하는 반면 정말 거대한 대형교회
에서 그럴 의지와 생각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식 석상에서의 기
도와 평상시 말은 다음 세대를 논합
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이 없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리라는 믿음은 맹신
과 같습니다.

김영한 목사

사역 보고 | 유년부 봄맞이 수련회

헬로, 바이블! 좋은 신앙의 추억으로 간직되길

봄맞이 수련회 주제는

‘헬로 바이블’, 맛있는 점심과

신나고 재미있는 게임과

달콤한 컵케익을 즐기며

하나님 품에서 추억을 쌓았습니다.

유소년숲의 포도나무 유년부에서
는 봄방학과 새 학기를 맞이하는 유
년부 친구들과 함께 2월 23일 봄맞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봄맞이 수련회
의 주제는 ‘헬로 바이블’, 주제 말씀
은 신명기 6장 4절~6절 말씀이었습
니다. 유년부 친구들 100명과 40명의

선생님, 학부모님들의 섬김으로 하
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봄맞이 수련회는 여는 예배, 레크레
이션, 코너학습, 닫는 예배로 진행되
었습니다. 신나는 찬양을 드리고, 하
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는 예
배를 드리고 다목적관 5층으로 이동
해서 이어달리기, 친구들과 연합하
여 그림그리기, 선생님과 마음이 하
나되는 게임을 하면서 같은 조 친구
들, 선생님과 하하호호 웃으면서 친
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5개로 이루

어진 코너를 돌면서 주제 말씀을 오
감으로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코너학습 시간에는 우리 집 문
패를 예쁘게 꾸며보기도 하고, 신나
고 재미있는 게임으로 말씀을 되새
겨보기도 하고, 십계명을 스티커로
붙여보면서 익혀보고, 달콤한 컵케
익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만들
어 먹기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닫는 예배에서는 하루
를 보내면 봄맞이 수련회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기
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유년부 친

구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주일
에 그림일기와 설문지를 통해서 봄
맞이 수련회에 대한 소감을 말해주
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즐겁고 재
미있는 수련회를 보냈고, 여름 수련
회를 기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
다. 레크레이션 게임을 하루종일 했
으면 좋겠다는 친구들, 간식을 더 많
이 먹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
다. 유년부 봄맞이 수련회가 유년부
친구들이 어린 시절 교회에서 보낸
좋은 신앙의 추억들로 간직되어지
기를 소망합니다.

권효정 전도사

아기나들이



이인규 아기

2018년 11월 30일생

1. 인규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2. 인규가 이웃을 사랑하도록
3. 인규가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아빠 이익섭 성도 / 엄마 김지연 집사, 2019년 3월 10일 2부 예배



김애론, 김애린 아기

2018년 10월 30일생

1.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매사에 감사하며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르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3. 애론이와 애린이가 평생 친구로 우애 깊이 지내고, 지혜롭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아빠 김석원 성도 / 엄마 최준경 성도, 2019년 3월 10일 3부 예배

꼬마 인터뷰 | 왕세윤 집사

유튜브와 홈페이지 개혁의 주역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3월 초부터 눈에 띄이지는 않으나 대단히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주님의교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주일설교, 수요일설교, 특별행사 등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2019년 들어 이미 검색보다 점유율이 높아진 유튜브는 어린이부터 중장년까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영상의 형태로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매체로 자리잡았다.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님의교회 미디어관리위원회는 IT와 관련된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설교 동영상상을 올려 교회 안팎의 교인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그 개혁의 중심에 왕세윤 집사가 있다. 주중에는 지난 동영상을 올리느라, 주일에는 중등부 교사로 활동하느라 동분서주한 그이를 간신히 잠을 내어 만났다.

주님의교회에 오래 다니셨다면요?

부모님 따라 중학교 때부터 다녔으니 햇수로 28년쯤 되나 봅니다.

보기와 달리 교회 역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일설에 왕손이라는 루머도 있던데요.

교회와 성장을 함께 했습니다. 루머 아니고, 정말 고려 8대 현종의 30대손입니다. (함께 웃음)

설교 동영상은 유튜브에 언제부터 올렸는지요?

우선 올해 설교 동영상상을 모두 올렸습니다. 유튜브 개설 단계에서는 2017년 12월부터의 설교 동영상까지 마저 올리려 합니다. 홈페이지 개편 후에는 설교 동영상상을 유튜브에만 올리지만, 홈페이지에서도 연결해서 보실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도 개편한다고 들었습니다.

현 홈페이지는 약 십 년쯤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요청들을 한 평면에 무질서하게 반영하다 보니 아시다시피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실상 교회의 본질과 같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결점이 있었지요. 스마트폰으로 보기에 어려웠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아주 단순하면서 기능적으로 바꾸려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말에서 7월 초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세요.

다행히 묵묵히 함께 고민하고 동역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힘들지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오랜 애정이 담겨 있는 답변이었다. 혹시 유튜브 동영상 찾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동영상 재생이 안되는 분들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그의 전화번호는 010-6751-9870.

섬김과 나눔 소식

2019년도 회원 총회 개최



지난 3월 5일 늘푸른대학 11기 개강과 더불어 교회 중예배실에서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의 2019년도 1차 회원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손천숙 장로와 지유철 장로가 법인 이사로, 김성구 장로가 법인 감사로 각각 선임되었다. 이와 함께 손천숙 장로는 노봉옥 은퇴 장로 뒤를 이어 법인 사무국의 상임이사와 늘푸른대학 학장으로 취임했다.

함줄함울

알립니다

1. 교회 유튜브 채널 개설

주님의교회 PCL 로 검색하면 주일, 수요일, 특별예배 설교말씀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왕세윤 집사(010.6751.9870)

2. 새가족 겨자씨 인도자 모집

자격 : ①등록 후 2년이 지난 분(서리집사 및 향존직)

②새가족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분

③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가족을 헌신적으로 양육할 분

신청 : 3/17 ~ 4/14 매주일 오전 8:30 ~ 오후 2:00 로비(1층)

문의 : 문희삼 목사(010.4305.1849)

3. 양육클래스 불학기 추가 개설 강좌

▶ 요한복음 'Ego eimi' : 4/5 ~ 6/7(10주 과정)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강사 : 문희삼목사

▶ 신구약 성경개관: 4/5 ~ 6/7(10주 과정)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강사 : 황바울목사

접수 : 3/24,31(주일) 오전 8:30 ~ 오후 2:00 로비(1층)

문의 : 방순희 권사(010.3622.1368)

4. 2019 해외선교 비전트립 모집

▶ 베트남 (7/22~7/27, 15명)

▶ 키르기스스탄 (7/22~7/29, 12명)

▶ 코스타리카 (10/3~10/10, 10명)

신청(선착순) : 3/31까지 매주일 오전 8:30 ~ 오후 2:00

장소 : 로비(1층)

문의 : 이재홍 안수집사(010.7738.4455)

5. 교회 재정간사 모집 공고: 접수마감 3.31(주일)

자격 : 회계 경력과 역량이 있는 기독교인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있는 경우)

문의 : 교회사무실(02.416.5181)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나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